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참석 및
두바이 관광인프라 시찰
공무출장 결과 보고서**

2023. 12.



I. 출장 개요

1. 목 적

-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채택 이후 국제사회는 장기적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음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최고의결 기구로서, 협약 이행상황의 주기적 검토를 위해 매년(11~12월) 2주간 개최되고 있음
 - 파리협정 이행점검* 최초 실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채택 등을 통해 제2차 국가별 감축목표('31년 이후 기간) 상향 기반 마련
 - *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ing): 당사국들의 파리협정 이행 노력을 종합하여 파리협정 목표(산업화 이전 2℃ 상승 이내 억제, 나아가 1.5℃ 이내로 유지) 달성 수준
- 총회 참석을 통해 제주의 이행점검 현황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저감 노력을 전파하고자 함
- 도시간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협력과 역할제고를 위해 한국홍보관을 운영하고 제주 세션 운영
-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국제교류를 위한 제주-나미비아 협약식 및 두바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현지시찰 실시
- 추가적으로 코로나 이후 가장 국제관광이 빠르게 회복된 두바이지역의 관광여건 및 대표적 관광인프라 조사를 통해 제주관광 시사점 도출
 - 세계관광기구 상반기 국제관광지표에 따르면 전세계 국제관광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84%까지 회복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중동지역은 이미 120% 성장하여 세계관광의 회복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지역은 94%, 아프리카가 88% 회복한 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회복률은 61%에 머무름
- 이번 국외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요청에 따라 도(기후환경국, 혁신산업국)와 공동으로 실시되었음

II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개요

-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는 7개의 토후국 중 하나이자,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도시임.
- 전체 면적은 4,144km²(제주도 면적의 약 2배), 사우디 반도의 서쪽에 위치함

구분		내용		
지리	소속	아랍에미리트 토후국		
	면적	4,144 km ² (제주도 면적의 약 2배)		
	시차	-5시간(한국시간 -5)		
경제	화폐	디르함(AED) (1디르함=360원)		
	물가	품목	디르함(AED)	원
		택시로 짧은거리 이동	15	5,400
		워터파크 1일 티켓	290	104,400
		커피 1잔	18	6,480
		작은 생수 1개	1.5	540
두바이 메트로 1일 패스(성인)	20	7,200		
문화	인구	약 355만명 (2023)		
	정치체제	전제군주제		
	언어	아랍어		
교통	공항	두바이 국제 공항 (DXB)		
기후	기온	12월 최저기온	12월 평균기온	12월 최고기온
		16.3℃	21℃	26.2℃

III. 출장내용

1. 제주상품 전용 해외 전시판매장 현장 방문

- 일시 : 2023. 12. 02(토)
- 장소 : 제주상품 전용 해외 전시판매장, 팜 주메이라 조성지역
- 내용 : 제주상품 두바이 전시 판매장 현장 방문, 현황 청취 등
- 전시판매장 운영 현황
 - 두바이 1호점 23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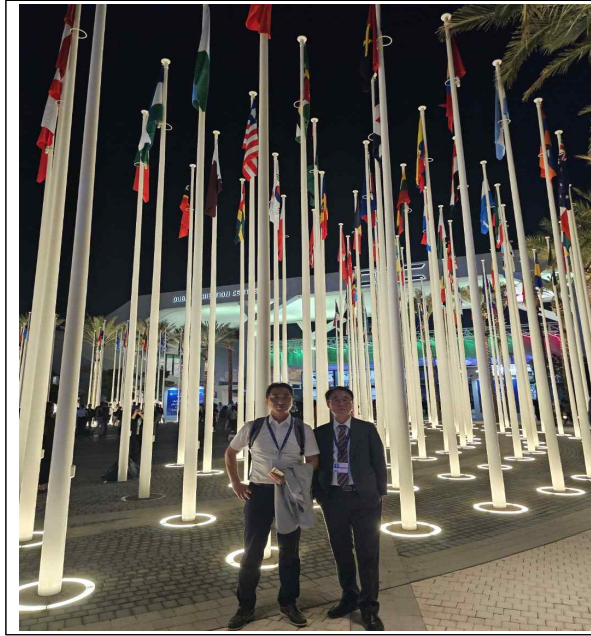
- 위치 : 2 Onyx Tower, Greens, Dubai
- 제주기업 18개사, 제주상품 85품목
- 두바이 2호점 5m²
 - 위치 : Center of Palm - Al Hilali - The Palm Jumeirah - Dubai
 - 제주기업 7개사, 제주상품 20품목



2. 언더2연합 총회 가입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요
 - 행사명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 기 간 : 2023. 11. 30(목) ~ 12.12(화) / 약 2주간
 - 장 소 :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 주 최 :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
 - GST(Global Stock-take) 전 지구적 이행 점검
 -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후재정의 역할 등
 - 참가규모 : 197개 협약당사국 정부 대표, 국제기구, 민간, 언론 등 4만여명
 - ※ 우리나라 환경부장관(수석대표), 외교부(기후대사), 지자체, 언론, 산업계 참석
 - ※ 지자체 중에서는 충남, 전남, 인천, 경기 고양시 등 참여
 - 주요프로그램: 당사국총회, 부속기구 회의, 고위급 회의, 기자회견, 부대행사, 전시 등
- 제주 언더2연합 정회원 가입

- 언더2연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최대 비영리단체인 기후그룹이 2015년 5월 설립한 유일한 회원연합체
- 현재 45개국 200여 지방정부가 가입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활동
- 올해 총회에서는 언더2연합 회원 주요 국가 각료와 주지사, 지방정부의 장들이 참석해 지역 기후행동 정상회담과 기후행동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후 리더십 언더2연합 가입 양해각서(MOU) 체결식 진행
- 언더2연합 MOU는 2010년 수준 대비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감축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실천적 탄소중립 확산을 협력·지원하겠다는 약정서임
- 제주도는 올해 초 언더2연합 가입 의사를 밝힌 뒤 지난 8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언더2연합은 특별회의 등의 협의를 통해 제주도의 최종 가입을 확정했다.
- 언더2연합 회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제시 △언더2연합 MOU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설정 △현재 또는 향후 감축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전략 채택 및 공표 △언더2연합 사무국에 매년 온실가스 배출 측정량 고시 등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약속해야 함
- 제주도는 이번 언더2연합 가입에 따라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기후변화 적응대책, 에너지 비전계획, 탈석탄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 등 탄소 저감 대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전 세계의 노력에도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유기적인 협력에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라며 “제주도 언더2연합 회원 도시 간의 협력을 굳건하게 만드는 지방외교 플랫폼이 되겠다”고 약속함



3. 도지사 주재 한인 만찬회

○ 일 시 : '23. 12. 2.(토) 18:00

○ 장 소 : 아시아나호텔 연회장

· 주소: Salahuddin Street, P.O.Box 4483 Dubai, United Arab Emirates -
(참가인원) UAE 한인회 집행부 및 임원 27명



4. COP28 제주 세션 운영

- 일시 : '23. 12. 3.(일) 17:00~18:30
- 장소 : UAE 두바이 엑스포 시티 한국홍보관
- 참가인원 : 당사국총회 참가자 30명 내외
- 배 석 : 도지사,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등
- 주 제 : 도시간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협력과 역할
- 세부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7:00 ~ 17:05	개회 및 내빈 소개 등	환경정책과장
17:05 ~ 17:10	격려사	제주특별도지사
17:10 ~ 17:40	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 Climate Change Policy - 조한나(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climate change adaption measures and role - 강진영(제주연구원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장) • Korea's Climate Change Response Strategy Policy : An Overview of National Initiatives and Progress - 조성래(국무조정실 서기관) • Climate Crisis & Meta-Earth Technology - 김형준(KAIST 교수) 	
17:40 ~ 18:30	종합토론 및 Q&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양덕순(제주연구원 원장) - 패널 조한나(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강진영(제주연구원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장) 조성래(국무조정실 서기관) 김형준(KAIST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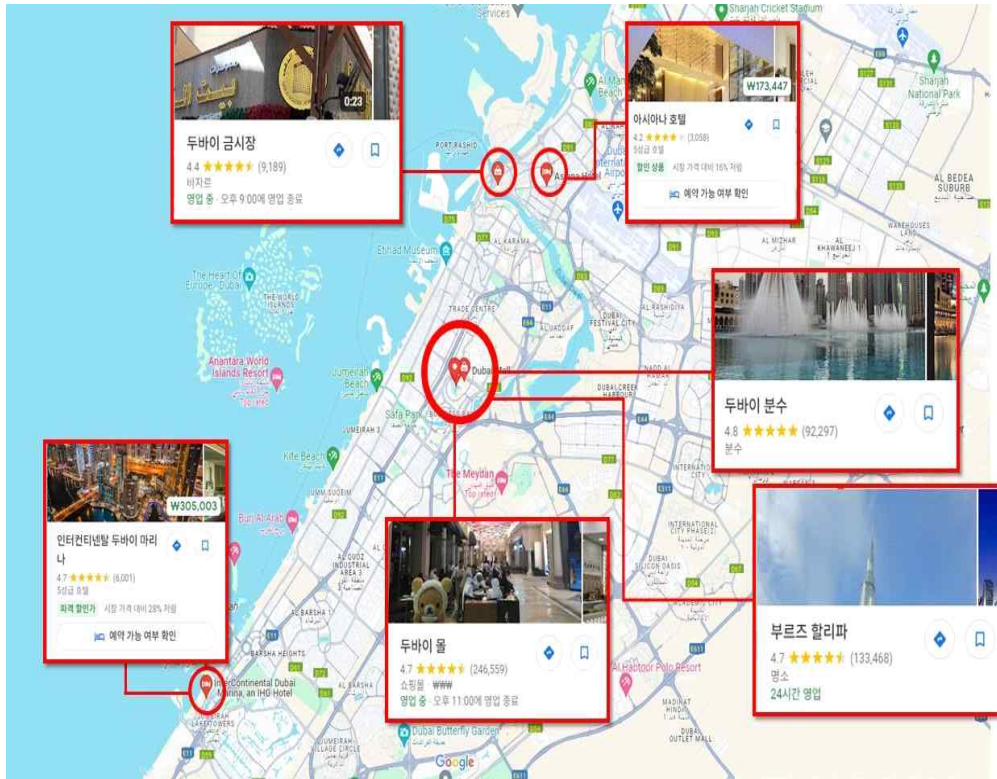


5. 두바이 관광여건 및 주요 관광인프라 시찰

1) 두바이 관광비전

- 2021년 두바이 정부는 두바이에 시민과 방문객을 포함, 두바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향후 두바이를 세계인들로부터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포괄 계획을 담은 'Dubai Vision 2040'을 발표

2) 두바이 주요 관광명소



브랜드	Visit Dubai	
관광 명소	사진	내용
		<p><u>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바이의 랜드마크이자 도심지역에 있는 828m의 세계 최고층빌딩 ▪ 지상 163층 지하 2층 ▪ 삼성물산 건설 ▪ AT THE TOP 전망대 야경
		<p><u>두바이분수</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00부터 30분마다 쇼 ▪ 45층 빌딩높이 물줄기와 음악 향연
	<p><u>두바이 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바이 대표 쇼핑몰 	

	<p><u>버즈 알 아랍</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호텔
	<p><u>팜 주메이라</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래로 만든 인공섬 ▪ 축구장 800개 면적, 야자수 형태 ▪ 초호화 거주, 호텔, 휴양시설

□ 두바이 물·두바이 분수

- 두바이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몰로, 면적이 1,200만 제곱미터에 달함. 약 1,200개의 매장과 150개 이상의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으며, 두바이 아쿠아리움과 수중동물원, 키자니아 두바이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갖추고 있음.
 - 현재 두바이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로, 2022년에만 8천만명이 두바이몰을 방문함.1)(2위와 3위는 뉴욕 타임스퀘어(3천 920만 명), 뉴욕 센트럴파크(3천 720만 명)임
- 두바이분수(The Dubai Fountain)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시의 다운타운 두바이 개발구역 중앙에 위치한 분수임. 부르즈 할리파의 인공호수(약 12만 m²)에 설치되었으며, 설치된 조명은 총 6,000개, 컬러프로젝터도 25대에 달함. 전체 길이 75m, 최대분사높이 500m 상공이며, 클래식 음악에서 현대 아랍음악과 전세계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임

1) BusinessInsider 집계



그림 17 두바이 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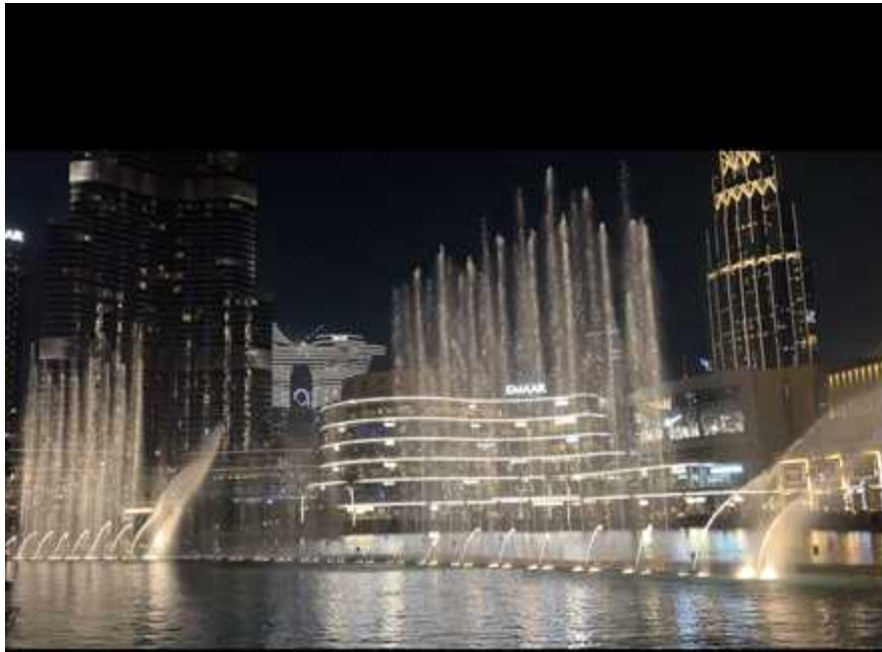


그림 18 두바이 분수

□ 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

- 부르즈 할리파는 높이 828m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건축물임. 아파트, 호텔, 사무실, 쇼핑몰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고, 꼭대기인 전망대에서는 두바이의 전경을 모두 감상하는 것이 가능함. 헬리콥터 투어 등 다양한 투어도 마련되어 있어 관광적 요소가 풍부함.



□ 팜 주메이라(Palm Jumeirah)

- 팜주메이라는 야자수 모양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인조 섬으로 고급 리조트, 빌라, 호텔 등이 들어서 있으며, 마리나, 골프장, 테마파크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두바이의 화려한 모습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며, 섬 내부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며 휴식을 취하기 알맞은 관광지임

- 두바이 정부 소유의 기업 나킬이 바다를 매립하여 건설하였고, 총 비용 123억달러(약 14조 3천억)을 소요하여 건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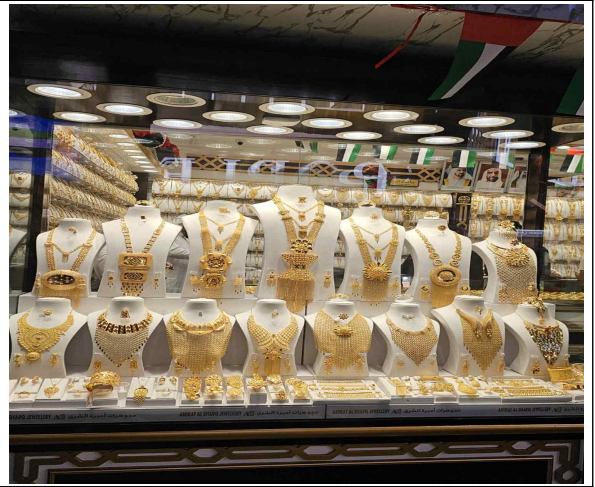


그림 21 팜 주메이라



□ 금시장

- 두바이 금 시장은 동방과 서방의 두 문화적 영향을 받은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진 금 시장임. 두바이에서 금 거래의 역사와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와 디자인의 금 보석, 목걸이, 반지, 그리고 골드 바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 뿐만 아니라 은, 다이아몬드, 각종 보석 등 다양한 귀금속의 거래가 이루어 짐



□ 알 시프(Al Seef)

- 두바이 중앙 도심에 위치한 알 시프는 역사지구로, 도시의 전통과 현대성이 혼합되어 있는 관광지임. 복고풍 건물과 현대적 건축물이 공존하는 독특한 모습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두바이의 상징적 명소로 자리잡음
- 알 시프에서는 현지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와 독특한 향을 가진 향수, 고급 의류등을 살피기 좋은 전통 시장도 위치해 있음
 - 알 시프에 위치한 수많은 전통 시장 중 하나인 '스페이스 스퀘어'는 도시에 서 가장 풍부한 향신료와 신선한 양념들을 구할 수 있음



3) 두바이 교통 시스템

- 두바이의 교통 시스템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로 도시의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고 있음. 지하철, 트램, 버스, 택시, 그리고 수상 교통까지 다양한 수단이 조화롭게 운영되며 이와 같은 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특히, 두바이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철 중 하나로 꼽히며,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인정받음.
- 두바이의 교통 시스템의 특징 중 하나는 자율주행 수단의 도입임. 두바이는 자율주행 전기버스와 드론을 활용한 혁신적인 교통시스템을 현재 실험하고 있음. 이는 도시의 교통체계가 미래 지능형 교통 기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핵심 특징 중 하나로 꼽힘.
 - 자율택시 운영을 위한 정밀한 디지털 지도 제작 돌입
 - 자율주행 수상택시 시범 운영 돌입
 - 에어 택시 서비스 위한 전자 수직이착륙 터미널 '버티포트(Vertiport)' 건설 추진
 - 두바이 자율주행 교통 전략만을 위한 부서 신설

4) 두바이 관광의 지역사회 기여효과

□ 관광 산업의 경제적 기여

- 2020년에만 두바이의 관광 수입은 30%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0억달러의 조수입 증가를 의미함²⁾
- 두바이의 세계적 관광 명소들로 인해 해외에서의 방문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2021년에는 약 2,000만명이 두바이를 방문하였으며 전년대비 15% 증가한 수치임. 모든 관광업종에서의 조수입은 두바이 전체 GDP의 13%에 기여하고 있음.³⁾

□ 관광 수입과 투자

- 2021년 기준으로, 두바이는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관광 수입을 기록하였고, 이는 2020년 기준 12% 상승된 수치임⁴⁾.

2) Dubai Tourism Board, 2021

3)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2022

○ 두바이는 꾸준한 관광 투자를 통해 도시의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데, 2021년에만 두바이는 약 15억 달러를 국내 및 국제 관광에 투자함⁵⁾.

□ 관광 산업의 고용 창출

○ 2021년 기준으로 두바이의 관광업계는 약 70만 명의 직원을 고용 중인 데, 이는 두바이의 전체 인구 355만 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임⁶⁾.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 대비 15%의 성장률로서 미래에도 더욱 큰 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5) 두바이 관광산업의 미래전망

□ 두바이의 산업과 미래관광산업

○ 두바이 산업의 성장 동력은 이전 석유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전(全)국가 차원의 관광 산업 육성에 있음. 대형 쇼핑몰, 테마파크, 현대적인 레저시설을 비롯해 자연환경을 활용한 사막투어, 해안 리조트 등 다양한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해 주요 관광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함.

○ 2020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간한 글로벌 경쟁력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UAE는 ICT 도입 정도를 평가한 항목에서 92.3점으로 세계 2위를 차지, 동 지수 세계 1위는 93.7점으로 대한민국임.⁷⁾

- 두바이의 글로벌 미디어 인사이트(Global Media Insight)에 따르면 2021년 UAE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97.6%로 집계됨.

4) Dubai Tourism Board, 2022

5) Dubai Tourism Board, 2022

6) Dubai Tourism Board, 2022

7) 이형민, 2022, 2021년 UAE ICT 산업 정보, KOTRA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00&CONTENT_S_NO=1&bbsSn=403&pNttSn=192072

ICT adoption		
1	Korea, Rep.	93.7
2	United Arab Emirates	92.3
3	Hong Kong SAR	90.2
4	Sweden	89.7
5	Japan	88.3
6	Singapore	88.1
7	Iceland	87.8
8	Norway	84.7
9	Qatar	83.9
10	Lithuania	83.8

그림 28 2020년 국가별 ICT 도입 정도 순위

- 2020년 열린 Dubai Expo 2020에서 두바이는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함. 이를 위해 분산된 두바이 스마트 도시 관련 부처들을 총괄하는 ‘Dubai Digital Authority(DDA)’를 설립하여 한 발짝 빠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계획하고 있음⁸⁾

□ 두바이의 교통정책 : 자율주행화⁹⁾

- 두바이의 교통 시스템의 특징 중 하나는 자율주행 수단의 도입임. 두바이는 자율주행 전기버스와 드론을 활용한 혁신적인 교통시스템을 현재 실험하고 있음. 이는 도시의 교통체계가 미래 지능형 교통 기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핵심 특징 중 하나로 꼽힘
 - 자율택시 운영을 위한 정밀한 디지털 지도 제작 돌입 : 교통수단의 자율화만이 아닌, 자율주행 교통수단들의 운영을 위한 도로설계에 착수. 40개 이상의 센서와 360도 카메라, 레이더 등을 장착한 차량이 주기적으로 주메이라(Jumeirah)지역을 주행하며 정밀한 도로 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음.

8) 2022, Smart Cities Index Report 2022

9) 이정모, 2023, 두바이 교통 자율주행화 어디까지 왔나, KOTRA,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4&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403%2C257%2C254&pNttSn=202838&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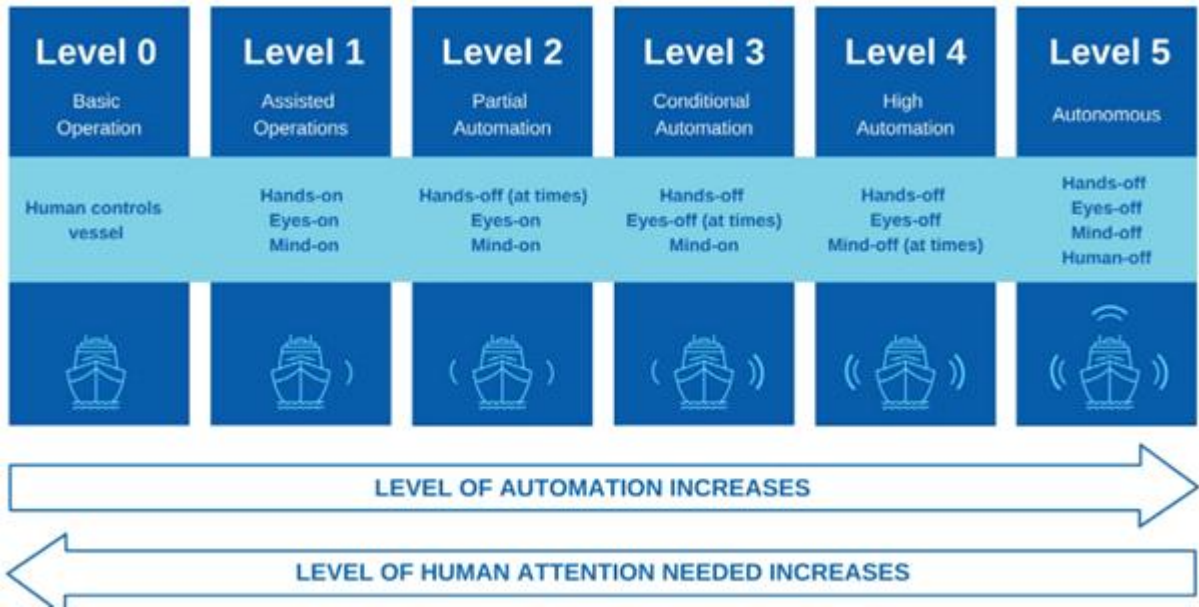


두바이의 도로 정보수집 차량

- 자율주행 수상택시 시범 운영 돌입 : 세계 최초 자율주행 전기 수상택시의 시범운영에 돌입함. 최고 속도 7km/h, 4개의 리튬 배터리로 7시간 운행이 가능함. 시스템 오류나 돌발적 외부 환경에는 모두 관제센터에 알려 시스템을 개선. 현재 두바이의 보트 자동화는 LEVEL4(High Automation)의 단계임



두바이 자율주행 수상택시 시범 운영 모습



보트 디자인, 운영 등에 대한 국제 자동화 레벨

- 에어 택시 서비스를 위한 전자 수직이착륙 터미널 '버티포트 (Vertiport)' 건설 추진 : 두바이 도로교통청은 에어택시 서비스를 위한 전자 수직 이착륙 인프라인 버티포트(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Vertiport) 터미널을 2026년까지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 버티포트 터미널은 두바이 국제공항, 팜 주메이라, 다운타운, 두바이 마리나 등 두바이 핵심지역 4곳에 설립 예정임



두바이 버티포트 터미널 조감도

- 두바이 도로교통청의 자율주행교통전략 : 두바이 도로교통청에서 자율주행 교통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두바이의 전체 교통량 중 25%를 자율주행으로 전환할 것이라 천명함. 해당 목표 달성 시 교통사고

감소, 교통비 저감, 교통효용성 향상, 탄소배출 저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두바이의 메트로의 경우 이미 무인화에 성공하여 운행 중이며 타 교통수단들도 상용화를 위해 개발 중에 있음



두바이 자율주행 교통 전략 계획

Mode	Metro/ other Rail	Bus	Marine	Taxi/Shared Mobility	Beyond PT ¹	Target 2030 (% Total Trips)
SDT Strategy	11%	2.6%	~0.1%	~1.8%	9.5%	25%

2030 전략 달성시 교통수단별 목표 비중

6) 제주관광에의 시사점

□ 야간경제 특구 지정

- 사막기후라는 자연적 특성, 인공 구조물과 화려한 조명, 이벤트 등은 두바이 야간경제 활성화의 배경이 됨

- 제주는 오랫동안 야간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음. 제주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치안과 매력적인 조명 등이 기반이 되고 다양한 지역 콘텐츠가 집중된 야간경제 특구 조성이 필요해 보임
-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야간시간대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야간경제 특구로 지정하고 인근지역 상권, 박물관, 대중교통시스템을 연계한 야간경제 특구 조성 제안함

□ 개별관광객 민간서비스 및 정보제공 강화

- 개별관광객의 이동은 아직까지 택시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음. 두바이에는 다양한 택시회사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택시플랫폼으로 Careem이 있음
- 그러나 개별관광객이 택시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결제시스템을 연동해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플랫폼 이용에 주저함이 생김. 제주를 찾는 관광객 역시 택시를 이용할 때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접근하는데 동일한 불안감을 느낄 것임
- 국내 카카오택시플랫폼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랩, 카림 등 전세계 12개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해외 이동플랫폼을 통해 국내 택시를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제주를 찾은 해외관광객들이 제주에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민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용태세를 강화할수 있음

□ 원거리 경유관광객 유치마케팅 강화

- 전세계는 이미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 84%의 국제관광회복력을 보이고 있음. 특히 중동지역은 이미 120% 회복하였으며 유럽 94%, 아프리카 88%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61%로 가장 느리게 회복되고 있는 시장임
- 활발하게 회복되고 있는 원거리 지역의 관광객을 제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허브공항이 있는 서울, 인천과의 공동유치마케팅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를 2,000만명으로 발표하

였으므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래관광객이 제주를 경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개발과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부산관광공사 등 NTO, RTO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산업연계 신관광모델 벤치마킹

- 두바이는 인공구조물을 거대하고 창의적인 예술품화하여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최근 UAM, 자율주행 등 교통수단 관련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자 하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음
- 이는 제주가 추구하는 신산업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관련 계획과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